# 세상 훔친 도둑들의 말씀파괴

## (신10:1~11)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2.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 훔친 도둑들의 말씀 파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 훔친 도둑들의 말씀 파괴'

세상을 훔친 도둑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말씀을 파괴하고, 이 말씀 파괴는 선민으로 불리는 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선민의 그룹 안에 속해있는 가짜 선민들이 말씀을 파괴하고, 이렇게 말씀을 파괴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세상을 훔친 도둑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훔친 도둑입니까? 반드시 말씀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파괴한다.'는 것은 말씀을 대할 때 나는 파괴하는 줄도 모르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실상은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세상을 훔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을 훔치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인데, 말씀이 파괴되는 때에 특별히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씀을 읽으며 QT를 한다고 하는데, 그 때의 내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훔친 도둑의 마음상태라면 QT를 통해 철저하게 말씀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지요. 말씀만 파괴하지 않으면 불행은 존재할 수 없고, 이 불행을 가져오는 말씀파괴는

반드시 세상을 훔친 도둑들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훔친 도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말하는 인간의 불행은 기원이 있는데 도난 사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가 주신 제우스 몰래 하늘에서 불을 훔쳐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친 장본인이 프로메테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도둑맞은 제우스가 화가 나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복수를 행하게 되는데 ‘판도라’라는 여자를 하나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이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판도라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여자였고, 마침 에피메테우스도 판도라의 호기심을 불태울만한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에피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어서 말하는 능력을 주고 직립보행의 능력을 줄 때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와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삶의 환경을 줄 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모아서 단지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단지 안에는 각종 질병이나 인간의 삶에 주어질 모든 재앙들, 정신적 심리학적 차원의 질투, 원한, 복수심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호기심 많은 판도라가 견디지 못하고 그 단지를 열게 되면서 모든 불행이 다 튀어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판도라의 상자’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가 보는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의 이유는 판도라가 단지를 열었기 때문인데, 더 근원적인 이유는 제우스가 판도라를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 집안에 보내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도둑질이 인간의 삶에 씻으려야 씻을 수 없고 없애려야 없앨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각종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난 사건은 신화가 아닌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결국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판도라처럼 여자인 하와가 도난 사건을 통한 인간의 불행에 한 몫을 톡톡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훔쳐서 후손들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땅 위의 삶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본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 가져도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향해서 ‘선악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마음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려면 내 마음에 끌어들여야 하고 끌어들인 것은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선악 판단이 금지된 본래 사람의 것으로 정해진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었는데 아담은 도대체 세상에서 뭘 해야 합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선악 판단을 하지 못하니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

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사는 자로 하늘의 하나님을 마음에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자리의 역할이었습니다.
내가 가정이 있다면 가정을 내 것으로 삼아서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갖고 '나'라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가정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었고 '나'라는 사람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존재의미인 것입니다.
내 직장, 내 나라,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몸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가지면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관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것이므로 실지로 건강 문제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자리 역할만을 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할 그것들을 자기가 가짐으로 자기의 뜻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일(가정, 자녀, 직장, 승진, 결혼,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 훔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받은 이야기가 회상되고 있는데, 모세는 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버렸을까요? 위대한 모세께서 위엄에 걸맞지 않게 경거망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다지만 왜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의 돌판을 깨뜨려버립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광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자기의 격정을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르비딤에서의 사건처럼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의 참 의미는 선민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금송아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난리를 친 이 사건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과 등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9:16~17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라고 하시는데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와 일치 되는 것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은 다 깨뜨려질 것이고 그 현장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도 다 깨뜨려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선민과 가짜 선민을 가려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5:17~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가짜 선민의 특징은 말씀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수고 파괴하는데, 참 선민

은 율법의 일점일획도 부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말씀을 깨뜨린 일이 금송아지 때문인데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세상을 훔쳤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세상을 훔쳤다'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일들을 마음에 담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내 바깥에 있는 세상 것들의 이름을 담게 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와 관계를 합니다.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담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의견도 생각도 없는 능력만 가진 금송아지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문제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정보를 알아보아야 직장이 구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 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이미 믿고 있던 사람이라도 먼저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담겨진다면, 그 뒤에 들려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역사와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든 기적적인 능력이 금송아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 모든 말씀이 다 파괴되고 부셔져버리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깨어진 것은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시내산 계곡물에 뿌려버리는데, 이것은 내가 그렇게 깨뜨려져서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세상을 담고 있으므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나'가 깨뜨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는 '내가 깨뜨려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깨뜨려지느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뜨려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버리면 됩니다. 십계명 돌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상징하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버리니 하나님의 인격성을 상징하는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인격이 없고 단지 능력만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능력, 홍해를 갈랐던 능력, 광야에서 만나와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능력만 남아있게 되므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 시켜서 시내산 까지 끌고 온 여호와'라고 말하게 된 것인데 누가 깨져야 합니까? 내가 깨져야 합니까? 말씀이 깨져야 합니까?
내가 지금 삼성, LG, SK 굴지의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

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금송아지가 되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파괴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QT를 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취직한 모습을 마음에 그리라'는 이 따위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축복이 3박자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 다 말씀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에 대해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갖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지독하게도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는데 '목이 곧다'고 하십니다. 지독하게도 마음이 세상을 놓지 않고 훔친 상태를 고집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직장 문제를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해주느냐고 따지고 들고, 내 자녀를 내가 키우고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느냐고 따지고 드는데 이것이 훔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인줄을 모르고 자연스러울 정도로 느끼는데 유전죄 때문입니다.

십계명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금송아지 때문에 깨뜨려졌습니다. '금송아지'는 인격적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성이 제거된 능력만 남아있는 신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인격성을 나만 가지고 신은 내가 판단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비인격자인 능력자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꾼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QT하고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서 어떻게 행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거하실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 위하여 점거하실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진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파괴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집은 말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을 훔쳐서 담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성을 배제하고 능력만을 취득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점을 잃고 마는데 말씀을 파괴하는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억제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해 바다의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어서 억제되어 서 있었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에서 선민의 나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뒤덮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나고 억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면 우리의 삶도 혼돈과 공허

와 흑암으로 덮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지는 것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없는 혼돈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흑암이 덮인 깊음으로 나를 공격하고 엄습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어져야 삶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말씀을 파괴하면 어떻게 행복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세상을 집어넣어서 세상에서 얻고 싶은 내 소원과 계획과 뜻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 듯이 세상을 쥐고 있는 나, 세상을 담고 있으므로 걱정하고 있는 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지 않고 말씀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만 살아나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지구의 어마어마한 삼라만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파괴하지 않으면 내 삶은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납니다.

왜 세상을 훔쳐서 내 것처럼 생각하고 본래 내 것으로 주어진 하나님은 가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서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 시작해 연쇄적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된 것처럼, 아담이 사탄의 꾐으로 이 세상의 삶을 훔쳐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상속되었는데 이제 이 상속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을 받는 한 선민의 그룹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깨뜨리게 되고 말씀을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고 혼돈과 공허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살이 되어 붙어 있는 세상, 내 가족과 건강과 성공과 형통, 목사님들에게는 예배당과 부흥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끈끈하게 내 마음에 붙어 있습니까? 세상 것이 붙어있는 이 상태로는 성경 백독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먼저 훔치고 마음에 담은 상태에서 성경을 백독하면 말씀을 백번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훔친 상태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 같이 다섯 시간 QT를 해도, 매일 다섯 시간씩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 살이 되어 붙어버린 내 마음이(인격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일이 계속 자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를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어차피 세상 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일 죽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일 죽기 전 까지 내 몸이 죽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마음이 훔쳐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내 사업이 내일 모레 망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망하는 사업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사업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사업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사업을 붙들고 있는 내가 가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지 않을 위치에 선다면, 하나님은 말씀이 다 죽었던 잿더미 위에서도 사업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두세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좀 내버려 두시는데 십자가로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든 말씀이든 더 이상은 파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지 맙시다.
세상을 훔쳐서 마음에 담게 되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성인 말씀을 파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의견을 다 제거하고 능력만 남겨서 금송아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계명 돌판이 깨뜨려지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자리는 없어져버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훔치려는 나만 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에서 당신의 보기에 좋으신 뜻을 따라 창조의 사역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더 이상 도둑질 그만하고 그러기 위해 십자가 붙잡고 나를 가루로 만들며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대신에 내가 파괴되어 하나님 말씀만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